

석유업계危機의 實態

— 油協 弘報室 —

—戰略적으로 중요한 基幹産業인 石油業界가 심각한 經營危機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事態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油類價格의 現實化와 適正利潤의 반영이 時急하다. 특히 總原價에서 12.1%의 比重을 차지하는 精製費의 現實化가 필요하다.

—또한 現行 油價制度를 自律化, 정유회사 판매가격은 石油協會에서 自律적으로 결정하고 各流通段階別 도·소매價格은 有關團體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石油業界의 經營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 2차 石油危機, 이란-이라크戰爭에 따른 供給不安과 原油가격의 상승이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石油供給을 담당하고 있는 石油業界의 위기가 表面化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總에너지供給에 있어서 石油은 현재 61.3%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86년에 가셔도 總에너지공급에 있어서 石油의 比重은 50.2%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國際石油情勢는 계속 불투명의 度를 더해 가고 있으며, 長期的인 觀點에서 供給不安과 가격상승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石油業界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가경제와 國民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石油의 安定적 供給을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이 戰略적으로 가장 중요한 基幹産業인 石油業界가 심각한 經營危機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經濟와 國民생활에 있어서 매우 우려할만한 事態가 아닐 수 없다.

國內 精油業界는 80년에 1천 9백 48억원의 赤字를 낸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도 1천여억원의 결손을 냈으며, 앞으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年末까지 결손액은 1천 7백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精油業界의 赤字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전스리자가 국제高金利추세에 따라 지난 4.19 油價조정 당시의 年14.5%에서 최근에는 19%선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換率도 당초 예상했던 상승율인 5%에서 年末까지는 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正유업계의 금융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다.

또 금년 상반기중 湖油의 15만 배럴 증설로 정제 시설은 늘어난데 비해 油類소비는 감퇴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중 석유류소비는 총 9천 2백 99만 배럴로 前年同期에 비해 0.26%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年度別 精油 5 社 賣出額 및 純利益推移

(단위 : 百万원)

年度	賣 出 額		稅 後 純 利 益		利 益 率	
	金 額	指 數	金 額	指 數	%	指 數
1975	802,544	100	12,232	100	1.6	100
1976	1,054,837	131.4	23,863	195.1	2.3	143.8
1977	1,150,680	143.4	2,736	22.4	0.2	12.5
1978	1,338,830	166.8	28,534	233.3	2.1	131.3
1979	2,087,955	260.2	19,429	158.8	0.9	56.3
1980	4,151,273	517.3	△ 208,723	△ 1,706.4	△ 5.0	△ 321.5
1981 (1~6)	2,646,163	659.4	△ 109,039	△ 1,782.8	△ 4.1	△ 256.3

主要業種別 經營分析比率 比較表

(單位 : %, 千원)

業種 年度 區分	精 油 業							製 造 業						
	'75	'76	'77	'78	'79	'80	'81 (1~6)	'75	'76	'77	'78	'79	'80	'81 (1~6)
1. 收益性分析														
売出額利益率	1.65	2.26	0.24	2.13	0.93	(5.03)	(3.81)	3.40	2.69	2.04	2.29	1.65		
總資本回轉率	177.58	223.45	229.17	247.89	202.15	212.33		111.18	117.47	126.47	120.09	117.58	127.0	
自己資本回轉率	1,190.91	1,306.19	1,325.60	1,321.60	2,051.61	16,472.93		484.11	561.71	600.49	548.03	544.24		
總資本利益率	2.93	5.05	0.55	5.35	1.88	(10.68)		3.78	3.16	2.58	2.75	1.94		
自己資本利益率	19.65	29.52	3.18	28.15	19.08	(828.59)		16.46	15.11	12.25	12.55	8.98		
2. 財務構造比率														
流動比率	119.9	126.9	120.8	125.3	112.6	110.8		119.7	116.2	114.3	109.3	100.6	98.9	
固定比率	144.4	108.6	98.2	93.0	98.4	478.7		200.0	210.2	217.5	231.8	240.4	263.2	
負債比率	462.8	359.6	304.0	261.8	495.5	2,151.7		351.5	372.2	349.3	363.3	377.5	487.9	
自己資本比率	17.8	21.8	24.8	27.6	16.8	4.4		22.1	21.2	22.3	21.6	20.9	17.0	
3. 生産關係比率														
부가가치 (종업원 1인당)	14,190.0	21,203.9	13,151.7	23,899.5	21,514.0			1,567.3	2,081.2	2,223.0	2,955.3	3,719.6		
순이익(%)	3,386.4	6,710.1	474.2	8,290.5	4,491.0			244.5	253.9	206.0	278.4	245.0		
매출액(%)	173,223.1	224,327	277,173	334,425	458,276			7,184.2	9,437	10,112	12,137	14,885		
총자본투자효율	15.4	19.0	11.0	18.6	14.3			24.2	25.8	27.9	29.1	29.5		
業種 年度 區分	建 設 業							電 氣 業						
	'75	'76	'77	'78	'79	'80	'81 (1~6)	'75	'76	'77	'78	'79	'80	'81 (1~6)
1. 收益性分析														
売出額利益率	3.58	5.59	7.19	4.88	4.00			5.35	6.82	14.41	9.65	12.86		
總資本回轉率	150.00	128.44	146.31	165.98	150.75			37.00	38.86	38.93	36.27	43.31		
自己資本回轉率	504.19	590.52	614.60	732.57	732.75			127.48	100.73	92.09	92.12	123.02		
總資本利益率	5.37	7.18	10.52	8.10	6.03			1.98	2.65	5.61	3.50	5.57		
自己資本利益率	18.05	33.01	44.19	35.31	29.31			6.82	6.87	13.27	8.89	15.82		
2. 財務構造比率														
流動比率	100.8	98.4	115.5	119.6	120.9	108.8		74.4	118.1	101.2	81.8	87.7	83.0	
固定比率	133.6	159.1	113.3	113.1	121.5	149.2		261.1	201.2	209.8	236.6	264.7	281.9	
負債比率	256.6	368.7	310.9	349.8	383.5	524.9		200.6	133.5	138.8	167.4	197.2	257.9	
自己資本比率	28.0	24.3	24.3	22.2	20.7	16.0		33.3	42.8	41.9	37.4	33.6	27.9	
3. 生産關係比率														
부가가치 (종업원 1인당)	1,204.4	2,180.9	3,163.7	3,345.2	4,602.3			6,004.6	8,923.0	12,935.3	13,365.7	21,257.2		
순이익(%)	107.5	286.5	591.3	405.7	455.0			1,031.9	1,734.0	4,502.5	3,243.7	6,483.1		
매출액(%)	3,000.9	5,129	8,222	8,320.0	11,362			19,296.5	25,440	31,247	33,621	50,403		
총자본투자효율	60.1	54.7	56.3	66.8	61.0			11.5	13.6	16.1	14.4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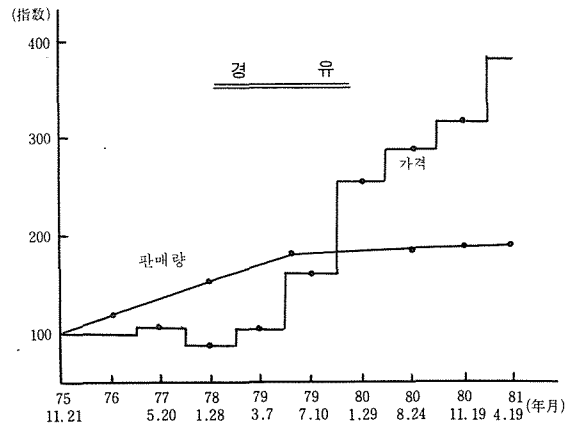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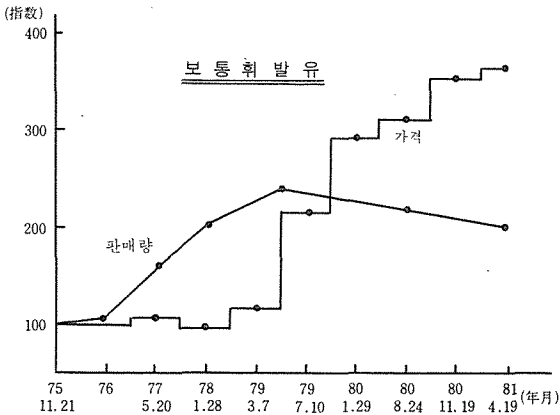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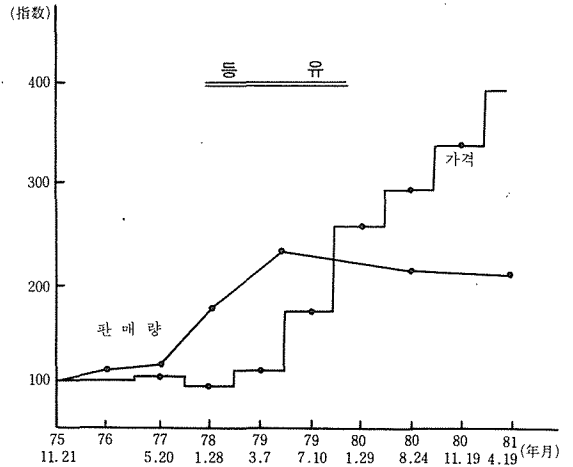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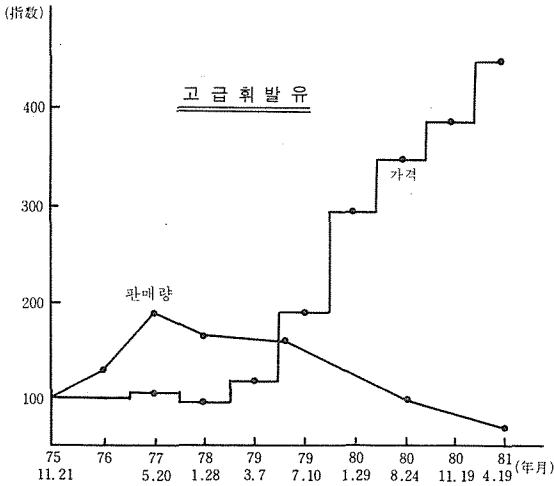
□ 特輯 : 석유업계의 当面課題와 展望

휘발유(보통)는 16%, 등유는 7.4%가 감소되는 등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精油會社의 가동율은 지난 3월의 98.3%에서 6월에는 56.1%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같은 가동율의 저하와 輕質油 수요의 감소로 인해 各精油社의 실제판매복합단가는 지난 4.19油價調整시에 반영된 판매복합단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年末까지의 추정결손액 1천 7백40억원중 이와

같은 판매복합단가차액에 의한 결손액이 1천 1백 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近間に 이르러 정부가 정유산업의 이윤개념을 약화 내지는 배제한 결과, 정유업계의 체질이 극도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유산업의 취약성은 매출액영업이익율이 제조업전체 평균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石 油 類 稅 比 較

石油가격의 상승으로 脫石油와 에너지절약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석유가 전체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比重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석유의 에너지源으로서의 절대적 중요성은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유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격의 현실화와 적정이익의 반영이 시급하다.

특히 총원가에서 1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精製費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 油價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가 공장도가격에서부터 각유통단계별로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현행 油價제도를 自律化, 정유회사판매가격은 石油協會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각유통단계별 도소매가격은 有關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民間 주도형 경제체제에도 합치되는 것이다.

또 시설, 原油비축 및 시설개체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82년까지 60日分의 비축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천여억원의 엄청난 자금이 소요

된다. 精油社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財源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유저장시설에 대한 금융지원과 특별상각, 원유저장시설에 대한 자산세 경감, 비축석유구입자금의 금융지원과 利子補填등의 지원이 있어야겠다.

石油類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축소조정 되어야겠다. 현행 석유류세는 從價稅이므로 油價가 인상될수록 稅收은 加速的으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석유류세의 축소조정과 아울러 從量稅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国別	稅制	稅率	消費者價格中 稅金이 차지하는 比率(%)		
			휘발유	경유	빙커C유
韓 国	從價稅	1. 特別消費稅 (휘발유 130%, 경유 7%)	57.5%	14.5%	9.1%
		2. 附加價值稅 10%			
		3. 防衛稅 : CIF의 2.5%			
日 本	從量稅	1. 휘발유세 8,553円/배럴	35.2%	4.1%	
		2. 石油去來稅 3,863円/배럴			
台 灣	從價稅	1. 石油類物品稅	13.7%	13.0%	3.1%
		휘발유 13.7%			
		등유 8.04%			
		경유 13.03%			
		B - C 유 3.08%			

— 石油用語해설 —

<석유가격 連動制>

국내 石油價格을 산유국의 原油價 인상, 換率변동 및 기타 인상 요인에 연동시켜 그때그때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누적된 인상 요인에 따라 한꺼번에 유가를 조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겨울철 盛需期에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의 실시를 보류하고 있다.

<배 렬>

배럴의 어원은 18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원유를 운반할 때 50갤론들이 나무통에 넣어 운반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이 운반용 나무통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후 석유단위로 사용하게 되었다.

1배럴은 42갤론이며 이것은 159ℓ 와 같은 양인데 한국의 드럼통(200ℓ)한개의 용량과 거의 비슷한 양이다.

<메이저>

엑슨, 모빌, 소칼, 텍사코, 걸프, 셸, BP를 7대 메이저 라고 한다. 이들은 석유의 채굴, 수송, 정제, 판매에 이르기까지 석유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회사들이다.

메이저가 막대한 지배력을 구사했던 시기는 제2차세계대전 직후의 수년간이었다. 그러나 OPEC의 대두후에 그 역할이 현저히 감소되어 메이저들은 우라늄, 석탄 등의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